

디자인 인재로 성장하다: 디자인 유학

1978

디자인진흥원사

- 「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령 공포
- 미국 시라큐스대 유학생 파견
(석사 과정)
- 해외 각국 포장시찰단 내방
(대만, 싱가폴, 일본, 중국, 홍콩 등)
- 100억 달러 수출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 디자인사

- 《동아미술제》 개최
-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SPDA) 창립
-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 제1회 한국공업디자인상 공모전
(KSID 주최)
- 힌글 모아쓰기 가능한 CRT 단말기 개발
- 권명광, 쌍용, 대웅제약 CI 개발

한국 사회사

- 세종문화회관 개관
- 고리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 시작
- 자연보호현장 선포
- 제2차 오일쇼크
- 과천신도시계획 결정 고시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외화 유출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행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밀려들자 해외여행 자유화를 검토하게 되었고, 1983년 1월 1일부터 조건부로 조금씩 허가하다 1989년에는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이때부터 외국 대학 진학, 어학 연수, 워킹 휴리데이 등으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디자인 연구를 위한 유학은 이러한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이 일기 전부터 조금씩 시도되었다. KIDP는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해 1978년부터 매년 한두 명의 디자인 전공자를 선발해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산업디자인 석사 과정에 약 2년간 유학을 보냈다. 이후에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간 단기 연수생들을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 파견해 연수시켰다. 이 유학생 파견 제도는 한국공예시범소에서 추진했던 해외 유학생 파견 업무를 계승한 것으로서, 디자인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이때 파견된 유학생들은 유학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디자인계의 중진으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1981

년 12월에는 국비 유학생 파견 분야에 디자인 분야를 신설해 2명을 지원했다.

이러한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은 KIDP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시절인 1994년에 시작된 「산업 디자이너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해외 연수 교육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국 디자인산업에 견인 차 역할을 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산업디자인 및 포장 전문 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이나 회사에서 3개월간 실무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4년과 1995년에는 39명이 해외 유명 학교 및 디자인전문회사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1996년에는 100여 명이, 1997년에는 약 120명이 해외 전문 기관과 기업체에 파견되었다. 연수 기간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났다. 연수자에게는 월 1,200달러(당시 한화로 약 103만 원), 3개월 이후에는 월 900달러(당시 한화로 약 77만5천 원)가 지원되었다.

현재 KIDP는 이러한 디자인 유학생 파견 제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해외 선진 디자인 기관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한국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이너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돋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사회 공헌 및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디자인 나눔 사업(2010-)」, 한인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인턴 디자이너 해외 파견(2010-2012.3)」,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실무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한인디자이너네트워크」 발족(2016.11), 해외 대학과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2015-2019)」 등이 그것이다.